

충청학연구부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참된 의미의 지역문화가 존재하기는 힘들었다. 지금까지 지역사와 지역문화는 중앙의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고, 때로는 지역민의 의지와 달리 중앙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절하 되기도 하였다.

이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국력이란 사실도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문화'란 '내가 만들어가는 문화', '내 주변사람들의 문화'라기 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문화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중앙,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치우쳐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문화야말로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자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지역사, 지역문화,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내 고장을 제대로 알자는 지역학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는 것이다. 충청학연구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청학연구부의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충남의 정체

성을 찾고,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와 그 활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지역사 및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부서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1996년 충남발전연구원에 '역사문화부'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역사문화부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의 보존·계승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연구(1996)를 시작으로 충남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였다.

충남지역 개발사업의 증가와 함께 역사문화부 내의 발굴기능이 강화되자 1999년 7월 역사문화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역사문화센터가 다시 (부설)충남역사문화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연구소 내에 충청학연구부와 문화재연구부

가 설치되었다.

충청학연구부와 맥을 같이하는 역사문화부 및 역사문화센터의 중요한 연구성과로는 태안정신 발굴 연구(1997), 조선시대 무과시험제도 고증연구(1997), 서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1997), 홍주관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1998), 「충남의 향교」·「충남의 서원·사우」연구 간행(1999),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참여(200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도 1997년 발간한 『朝鮮時代 武科 殿試儀 考證 研究』는 국·내외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충남의 향교』와 『충남의 서원·사우』는 조선시대 향촌 사회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향교·서원·사우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지역사 연구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충청학연구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예산군과 아산시의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2001·2003), 충남 인물사 연구(2002), 예산의 효행과 우애에 관한 연구(2002), 충청감영과 관찰사 사료 전시 행사(2003), 등의 연구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다. 이중에서도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충남인물사 연구'는 충남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으로, 먼저 전근대 시기 100인의 인물을 선정하여 정리하였고, 앞으로 근현대 인물을 발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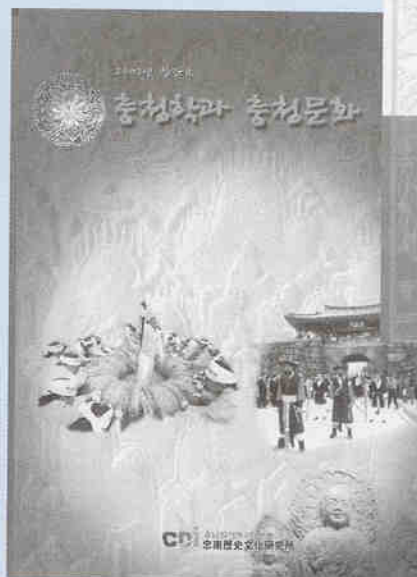
한편, 우리 부서는 문화재연구부와 함께 학술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충청지역 역사와 문화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2001년 12월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충청학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학·고고학·민속학·구비문학·인물사상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역민이 함께 '충청학'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후로 지금까지 2회의 심포지엄과 6회의 워크숍, 그리고 세 차례의 기타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충남의 역

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시도되었던 연구성과를 모아 2002년 12월에 연구지『충청학과 충청문화』창간호를 간행하였다. 창간호에는 충청학 관련 연구논문과, 기획특집으로 '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4편의 논문 등을 실었다. 연구지는 매년 간행할 예정이며,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충청학연구부는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충남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청지역의 미래상을 설계하는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홍제연)



충남발전연구원 2003년 1차 정기이사회 개최

- 지난해 3백23건 연구수행, 연구 질 제고에 주력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오제직)은 4월2일 도청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03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충발연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과제 11건, 수탁과제 1백13건, 디자인 홀닥터 12건 등 총3백23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01년 기본과제 11건, 현안과제 1백68건, 수탁과제 66건 등 총3백46건보다 23건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현안과제에서 55건이나 줄었는데 연구의 양보다 질 제고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수탁과제는 양에서 10건, 금액에서 20억원이 늘어 충발연이 지역연구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직 원장은 금년도 운영기조를 "도, 시·군정을 선도하는 '선진연구기관 정립의 해' 정하고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양보다 질적 연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수요자중심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대평 충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충남이 21세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충남으로 우뚝 설 수 있기 위한 충발연의 새로운 목표가 요구되고 있다"며 "충발연이 충남도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에 더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모두 통과 시켰으며,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중 10억원을 자체적립금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5억원은 2003년도 예산안을 포함시켰다.